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 송 | 시편 18(17),19-20

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 주셨네.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에, 넓은 들로 이끄시어 나를 구하셨네.

제1독서 | 집회 27,4-7

화답 송 | 시편 92(91),2-3.13-14.15-16(◎ 2ㄱ 참조)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음을 널리 알리리라. ◎

제2독서 | 1코린 15,54-58

복음환송 송 | 필리 2,15.16 참조

◎ 알렐루야.

○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 ◎

복 음 | 루카 6,39-45

영성체송 | 시편 13(12),6 참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



정수용 이나시오 신부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보도주간

내 눈의 들보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이어 나오는 구절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심판합니다. 상대의 작은 허물과 미성숙함을 들추어내며 그의 단점을 짚어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우월감에 우쭐함을 느끼며 만족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을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 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눈에 들보가 들어 있음을 깨닫지 못한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로 표현하십니다. 사실 눈은 우리 신체 기관에서 매우 예민한 곳 중 하나입니다. 미세한 혈관과 신경이 모여 이루어져 있고,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금방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에 비해 들보는 티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보는 보통 집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며 하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들보가 작은 눈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만큼 자신의 눈 속에 거대한 들보가 들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성찰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눈에 작은 티끌만 들어 있어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데, 하물며 들보가 들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내 생각과 주장이 얼마나 완고해진 상황이라는 말일런지요. 그래서 우리가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내 눈의 들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들보를 가지고 살면서도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았던 스스로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빼내야 앞이 밝아져 다른 형제의 티도 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상황을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손해나는 일인지에 따라 분간하지요. 다른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들 앞에 멋있게 드러나는지 그렇지 않은 지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앞의 상황은 돈의 들보, 뒤의 상황은 자아라는 들보가 들어 있기에 그러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눈에 들어 있는 들보를 바라보게 해 줍니다. 미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완고해진 내 눈의 들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들보를 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이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거울이 되어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자주 읽고 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우리 눈의 들보를 인식하고 용감하게 빼내어, 새로운 시선을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루카 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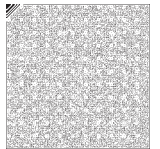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교회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몸소 가르치고 행하셔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제자들과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려 노력하는 우리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잘 붙어있으라 하십니다. 주님 말씀 되새기며 내 마음에 사랑과 실천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김문숙 요셉파나 | 가톨릭사진가회



최주봉 요셉
서울가톨릭연극협회장



| 나에게 하느님은

누군가 저더러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 저에게 하느님은 고마우신 분이라고 답하겠습니다. 8남매의 장남으로, 상과에 진학하길 바라시는 아버지 뜻을 거슬러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고,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연극에 데뷔한 후 20년 무명생활을 거쳤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시간을 하느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가끔 신앙의 신비를 느낍니다. 제가 그다지 독실하지도 않고 신앙심이 깊지 않은데도, 하느님께서 저를 도와주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은총을 한꺼번에 다 주시지 않고, 조금씩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기서 일해야 한다.'고 하시며 저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받는 은총에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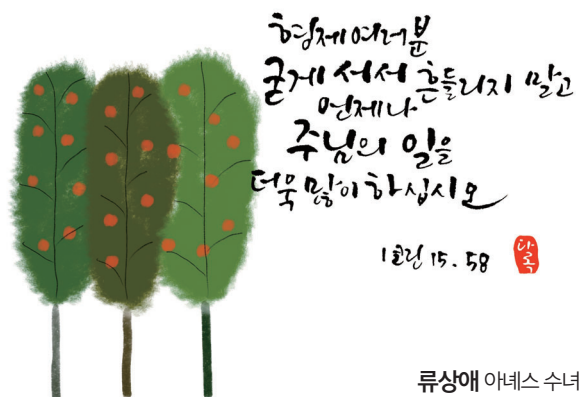
그런 감사한 마음을 느끼기에 저는 '몇 배로 더 깊어 나가야겠다', '주시는 일들을 해서 보답해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 공연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돈으로 할 일이 아니라 몸으로 때워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봉사도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제가 가수라면 혼자서 노래 하면 될 텐데, 연극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단체로 앙상블을 이뤄야 합니다. 여럿이 함께해야 하나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하고, 즐거워들 합니다.

또 고맙고 감사한 것은 칠순을 넘긴 이 나이까지 아직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매주 <테마기행, 길>이라는 전국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만 보 이상씩 걸어야 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어디가 아프거나 시원찮으면 촬영을 할 수 없을 텐데, 아직 제 몸이 버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각 지방 MBC

를 번갈아 가며 촬영하는데, 다음 차례인 충북 MBC가 가톨릭 성지를 중심으로 찍자고 제안해서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고, <테마기행, 길>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역사와 문화적인 접근을 하겠지만, 그래도 성지들을 찾아다니며 공중과 방송에서 소개할 수 있다는 점이 기쁩니다.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성호경을 바치거나, 무슨 일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비신자인 PD나 작가들도 제가 가톨릭 신자인 것을 알게 되어 제안해주신 겁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기도 지향은 오로지 연기 활동과 서울가톨릭연극협회 활동과 관련된 지향뿐입니다.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주십사, '서가연'이 잘 되게 도와주십사, 모두가 함께 공연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사,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느님을 믿으면 확실히 더 행복해집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더 행복합니다. 하느님 하고 같이 살기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편해지고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권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한껏 묵상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8

사적 계시는 오늘날에도 필요할까요?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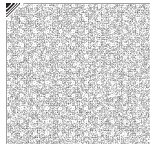
신약성경 중 가장 마지막 책을 가톨릭에서는 ‘요한묵시록’이라 하고, 개신교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 하는데, 두 표현은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apokalypsis, 숨은 것을 드러냄)를 번역한 것으로 사실 중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묵시’(默示)는 비유로 감추어진 것이기에 하느님이 열어주셔야 함을 강조합니다. ‘계시’(啓示)는 열 ‘계’(啓)자를 써서, 신비를 깨우쳐 열어주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가톨릭교회에서는 묵시문학의 특성을 강조하며 ‘묵시록’이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더 적합한 명칭은 ‘묵시록’이나 ‘계시록’이 아니라, 묵시록 1장 1절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흔히 ‘계시’를 ‘감추어진 것을 드러냄’이라 설명하는데, 틀린 답은 아니지만 온전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성경과 신학에서 말하는 계시란 ‘하느님께서 하느님에 대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절대자, 초월자, 창조주)에 대해 인간 스스로 알 수 없기에, 먼저 그분이 당신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계시의 대표적 형태는 ‘성경과 성전(聖傳)’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목적은 인간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상 창조’입니다. 창조를 통해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알려주셨고,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공적 계시는 인류 전체를 향한 하느님의 계시를 일컫는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말씀하셨기에 계시는 신약성경에 선포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비가 완성됨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떠한 새

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계시헌장』 4항) 사적 계시는 신약성경 완성 이후의 모든 환시와 계시를 일컫습니다. “(사적 계시들은) 그리스도의 결정적 계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시대에서 계시에 따른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가톨릭교회교리서』 67항)

하느님의 뜻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예언자들을 통해, 특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 1,1-2)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세상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행적, 즉 복음을 통해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신비, 구원 계획과 완성에 대한 모든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고, 실행되고, 결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계시헌장』 2항 참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뜻이고 의지이며, 하느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해 계시의 모든 의미와 내용이 완성되었으며, 이 계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 삶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계시의 완성이자 하느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순응하는 것이 신앙이며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 : 기억하기

양주열 베드로 신부 |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시노드 교구 실무자

각 본당과 공동체 차원에서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교구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 유행 중에도 시노드 소그룹 모임을 준비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시노드를 통해 하느님 백성 모두가 교회의 사명에 함께 참여하여 친교를 이루어 더욱더 시노드적인 교회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노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함께하는’ 시노드 방식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해왔던 모든 교회 생활과 직무수행을 ‘함께하는’ 시노드 방식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노드에서 다룰 의안을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함께’ 논의하여 모으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하느님 백성 모두에게서 교회의 현안을 듣고자 교구 차원, 대륙 교회 차원, 세계 교회 차원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노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노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구 단계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시노드 방식을 배우고 익히며 시노드 교회를 이루게 되고,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 제안함으로써 또다시 시노드 교회를 이루어 시노달리타스를 통해 시노드 교회로 성장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시노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 ‘함께’하는 여정이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시노드를 바라보거나 알아보는 것으로 그치는 대신 반드시 지금

보다 더 나은 시노드 교회를 만들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잠시 깊은 호흡과 함께 하느님을 향해 마음으로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당신 앞에 있나이다.”

시노드 과정에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서, 신앙 생활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 삶 안에 함께하기를 바랐던 우리 자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기억’은 ‘바로 지금 그리고 이곳’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들어 올리는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미사 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면서 기억하는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시노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체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언제였습니까? 누구와 함께하였습니까?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안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함께 걷는’ 시노드 여정을 위해 우리 각자가 해야 하는 ‘개인 성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노드 여정은 우리 각자가 참여하는 여정(개인 성찰)이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여정(소그룹 모임)을 이룹니다.



펠릭스 멘델스존 | 사진출처: 음악의 역사(음악사대도감)



행복한 작곡가 멘델스존이 말없이 건네는 노래 - '무언가(無言歌)'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입춘과 우수가 지났으니 어느새 봄의 문턱입니다. 한 때 핸드폰 통화연결음(컬러링)으로 많이 쓰이던 음악 중에 '봄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통화를 기다리는 동안 화사하고 밝은 피아노 소리가 나오면 저절로 선율을 따라서 흥얼거리곤 했죠. 이 곡은 낭만주의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1809~1847, 독일)이 작곡한 <무언가(無言歌, Lieder ohne Worte)> 중에서 '봄 노래(Frühlingslied)'라는 곡입니다. '무언가-말(가사) 없는 노래'라니, 언뜻 '재미있는 제목이다' 싶습니다. 이 곡은 가수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로 연주하는 노래입니다. 1829년 멘델스존이 스무 살에 처음 쓰기 시작해서 1845년 서른여섯, 세상을 떠나기 두 해 전까지 꾸준히 작곡했던 피아노 소품들이 6곡씩 총 8권의 <무언가>집에 담겨있습니다. 모두 48곡이죠. 거기에 첼로와 피아노로 연주하는 별도의 <무언가>가 한 곡 더 있습니다.

19세기 들어 유럽의 중산층 가정에는 피아노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이 추세에 맞춰 작곡가들은 짧고 서정적인 피아노 소품을 많이 작곡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런 자유로운 형식, 다양한 형태의 피아노 소품들은 낭만주의 음악의 한 특징을 이루었습니다. 멘델스존이 만든 <무언가>도 바로 이런 특징을 선도하는데 한몫을 했죠. <무언가>의 음악들은 대부분 길이가 짧고, 밝고 서정적이며 사랑스럽습니다.

멘델스존은 '행복한 자'라는 뜻을 가진 그의 이름 '펠릭스(Felix)' 만큼이나 복 많은 생을 살다간 작곡가입니다. 본인이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든든한 재력과 교양을 갖춘 집안 환경은 그의 재능을 한껏 꽃피게 해주었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였던 할

아버지, 부유한 은행가인 아버지, 교양이 넘치는 어머니에게서 수학, 프랑스어, 문학, 미술, 피아노의 기초를 배우고, 매주 집에서 음악회를 열어 당대 유명 인사들을 초대할 정도로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소년 시절 멘델스존은 음악은 물론이고, 문학, 기하학, 역사, 지리, 승마, 무용, 미술, 체스 등 못 하는 게 없었다고 하죠. 이런 성장 배경은 그의 음악에도 영향을 주어 멘델스존의 곡들은 대체로 밝고 따뜻해서 행복감을 줍니다. 또한 보수적인 스승에게서 착실히 배운 학생답게 그는 낭만주의 시대에 살면서도 고전주의 선배 음악가들의 작품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를 기초로 자신의 작품을 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음악가였습니다. 이런 성향이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바흐의 <마태 수난곡>을 연주함으로써 그 곡에 새 생명을 부여했고, 헨델의 작품들을 무대에서 부활시켰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최상의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갖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느라 일생을 작곡가, 독주자, 지휘자, 음악원 원장으로 바쁘게 살다간 부지런하고 성실한 음악가 멘델스존. 그를 생각하면, 주인이 맡긴 다섯 талан트를 잘 활용해 열 талан트로 만든 종의 이야기(마태 25,14-30)가 떠오릅니다. 멘델스존은 우리에게 음악으로, 말 없는 노래로 얘기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날 열 талан트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무언가> 중 '봄 노래 op. 62-6'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무언가 op.109'



명동대성당 유리화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사진 제공: 명동성당 사진부

정응모 에밀리오 신부 | 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리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답변에 앞서 교회의 유리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미술에 유리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2세기 고딕 성당 때부터였습니다. 건물이 높아짐에 따라서 창문도 덩달아 크게 낼 수 있었습니다. 성당에 많은 빛이 들어오게 되자 산만한 빛을 조절하기 위해 유리화를 설치하였습니다. 유리화는 빛을 조절해줄 뿐 아니라 당시에 글을 모르던 사람들에게는 그림으로 보는 성경과 같았습니다. 명동대성당 유리화는 프랑스 툴루즈의 제스타(Gesta) 공방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제8대 서울대교구 교구장 뮈텔(G.C.M. Mutel, 1854-1933) 주교의 일기에는 유리화와 관련된 글이 있습니다.

“오늘, 색유리들이 든 상자를 뜯는 일을 끝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것이 깨져 있었다.”(1897년 9월 1일 일기)

유리화를 손질한 후 1898년 성당 축복식에 맞추어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제단 앞 창문에는 <로사리오 십오단> 유리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회와 명동대성당의 주보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여서 묵주기도와 관련된 성화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었습니다. ‘환희의 신비 5단’, ‘고통의 신비 5단’, ‘영광의 신비 5단’을 볼 수 있습니다.

명동대성당 앞부분의 왼쪽 유리화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동방 박사의 경배>입니다. 이 유리화 하단의 라틴어는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란 뜻입니다. 오른쪽 창에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라틴어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마태 28,19 참조)란 내용입니다. 신자석 양쪽의 위아래 뽕족 창문에는 포도 잎과 식물 문양, 백합과 추상 문양이 묘사되었습니다. 성당 내부의 기둥 다발이 나무의 줄기라면 창문에 있는 다양한 문양은 나뭇잎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성당 안에서 생명의 나무 숲을 지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놓인 제대로 나아갑니다.

명동대성당은 1950년 6.25 전쟁으로 크게 파손되어 긴급히 복구하였으나 유리화는 오랫동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과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식’을 위해 방문하셨는데 이를 계기로 유리화를 보수하고 복원하였습니다. 이 작업에 우리나라 유리화의 선구자인 이남규(1931-1993) 화백이 헌신했으며, 중앙 출입문 상단에 <제44차 세계 성체 대회 기념 유리화>(1989년)를 제작했습니다. 2005~2007년에는 장상건 교수가 2차 보수와 복원 작업을 하여 오늘에 이릅니다. 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리화는 명동대성당에 있으며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례 편

#서울대학교_사목국 #cpbcTV #왜관수도원 #OLIVETANO_KOREA



김광두 고스마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찬미예수님, 유튜브 세계를 여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가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는 은총의 사순 시기를 통해 파스카 축제를 준비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각 본당의 전례 담당자들은 성주간 전례를 준비하기 시작하지요. 기록이 잘 남겨져 있는 공동체는 상관없이 없지만,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2월에 서품 받고 본당에 부임하자 바로 맞닥뜨리게 된 것이 성주간 전례였어요. “작년에 어떻게 하셨어요?”라는 질문에 다들 “글쎄요...”라고 대답하셔서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코더를 사서 중요한 전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캠코더를 장만한 김에 본당 행사, 교리나 강 의도 기록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게 되었지요.

지난 2년,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 성주간 전례를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일 년에 한 번이라 기물가물한 성주간 전례를 올리는 오래간만에 성대하게 거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유튜브에는 다양한 전례 영상들이 있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본당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지요.

우선 추천해 드릴 영상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채널의 『성주간 전례 교육』 영상입니다. 매년 이즈음이면 본당 전례 분과 분들을 대상으로 명동에서 성주간 전례 교육을 진행했는데, 범유행 상황으로 인해 작년년부터 강의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전례를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우 여러분께서도 듣고 공부해 두신다면 성주간 전례를 더욱 뜻깊게 참례하



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영상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사순 시기를 맞아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 묵상 영상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명동대성당이나 바티칸의 교황님 집전 대축일 미사 영상은 『cpbcTV 가톨릭 콘텐츠의 모든 것』 채널에 있으니 유튜브 검색창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 교구, 본당, 수도원의 전례 영상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 검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영어로 검색하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검색어는 가톨릭 굿뉴스(www.catholic.or.kr)의 “가톨릭 사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당 전례에 참조하기는 어렵겠지만 수도원 전례를 유튜브를 통해 체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례라면 수도원에서 정주 생활을 하는 베네딕도회를 떠올리게 되는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과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전례 전통을 느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래의 QR코드를

사목국 『성주간 전례 교육』 영상



cpbc TV 『전례주년의 핵심 성주간』 영상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채널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채널



3월 2일(수)은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로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3월 2일)부터 성목요일(4월 14일)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며, 주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회개와 기도의 시기입니다.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김택암(베드로) 신부님 추모미사

미국 체류 중에 병환으로 선종하신 본 교구 소속 원로 사목사제 김택암(베드로, 1967년 서품) 신부님의 추모미사가 2월 17일(목)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되었습니다.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때, 곳: 매월 첫 목요일 3월 3일 오후 8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용기장학회 기금 출연 안내



용기장학회

용기장학회는 우리 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소망과 꿈이 담겨있는 장학회입니다. 아시아, 특히 북방선교에 투신할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장학회를 함께 키우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박신언 몬시뇰 / 이사장: 정소택 대주교
- 용기장학회 기금 출연하는 방법: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정한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에게는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 문의: 02)727-2525 사무국
- 계좌: 국민은행(375301-04-076713), 우리은행(454-037208-13-001), 신한은행(140-008-715396), 농협(386-01-012782) /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13년 3월 6일 홍병철 루가 신부(39세)
- 1954년 3월 5일 김인상 야고보 신부(61세)
- 1975년 3월 5일 황정수 요셉 신부(85세)
- 2010년 3월 1일 김옥균 바오로 주교(85세)

교구칼럼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3월10일부터 매주(목)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A313호(구.계성여고)
회비: 1만원 / 문의: 010-4565-8898

성경통독 3월 피정(사목국)

내용: 신명기 역사서 / 지도: 조창수 신부
때, 곳: 3월2일(수)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강의실
회비: 2만원 / 입금: 우리 010-8889-5425 조창수
문의: 010-7586-5425 황테레사(문자로 문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관련 온라인 설명회

때: 3월2일(수) 14시~15시30분
강의: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신청: 태양광설명회-2월28일(월) 15시까지 온라인 신청(<https://bit.ly/2022>)
문의: 02)727-2272, 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ecocatholic@hanmail.net)

늘푸른 청년 주일학교 불학기 개강

대상: 35~45세 청년(88~78년생)
주제: 3545 늘푸른 시노드(대면)
때: 3월5일~5월28일(토) 17시
곳: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 회비: 3만원
접수: 2월19일 · 26일 17시~18시30분, 코스트홀 현장접수 / 문의: 02)3407-3921(카카오톡 늘푸른청년 주일학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청년 Hello 기도 2022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 (<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31

청년 Hello 기도 2022	삶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월피정 때, 곳: 3월8일(화) 19시30분~2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소성당 / 대상: 청년 누구나
------------------	---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제49회 서울가톨릭미술가회 정기전: 전관
전시일정: 3월2일(수)~7일(월)

서울대교구 사목상담, 대침묵 피정

주제: 내면의 아이의 회복
때: 5월20일~22일(2박3일) / 강사: 문종원 신부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사목국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위한 성경 소개 영상게시

3월2일(수)부터 신 · 구약통독 진도에 따라 순차적 게시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동영상 강의로 제공 / 문의: 02)727-2069 사목국 교육지원팀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사목국 홈페이지 참조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3월14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이은실 엘리사벳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도보순례 접수 및 순교자현양미사 안내

1)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신청 안내

날짜	3월12일(토)	3월15일(화)
코스	1코스 말씀의 길	2코스 생명의 길
비고	가톨릭대 성신교정까지 순례	당고개 순교성지까지 순례

회비: 1인 7천원(간단한 간식 제공)
신청: 2월28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방역지침 준수,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2) 순교자현양 신심미사

때: 매월 첫째(화) 3월1일 · 4월5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절두산 순교성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때: 3월3일(목) 오후 2시~3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 봉사국) /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없음)
문의: 02)727-2407, 2409

‘요양보호사’를 위한 마음 돌봄 프로그램

기본과정 (택1)	3월23일(수) 10시~17시, 전진상 영성센터(명동) 3월26일(토) 10시~17시, 노동사목회관(보문동)
피정(1박 2일)	4월2일(토) 14시~3일(일) 12시, 서울인근 장소(추후공제)

회비: 기본과정 1만원, 피정 3만원
신청기간: 3월2일(화)부터 기본과정 전일, 피정 3월25일(금)까지 / 문의(접수): 02)924-2721, 2 노동사목위원회(홈페이지 참조)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2 전반기 강좌 / 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2월14일(월)~3월1일(화)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링크: <http://samok.or.kr/html/bibleseedbed> 인터넷창에서 성서못자리를 검색하세요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3월7일~6월13일 매주(월),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15주 강의)
강의시간: 10시30분~12시30분

개강미사: 3월7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35세 미만 청년), 직장인(일반신자) 성서못자리

때: 3월2일~6월8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수강료(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면·동부 화요일 / 서부 목요일)

수강기간: 3월9일~6월16일(매주 1회 60분 강의 / 한 학기 15회 수업) / 회비: 8만원(수수료 포함)

4) 온라인 성서못자리(에드워드) 플랫폼 활용

수강기간: 3월7일~6월30일 / 회비: 10만원
수강방법: 에드워드ID와 비밀번호로 에드워드에 접속하여, 한학기 20강을 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강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공품반의방선교회	3월6일(일) 10시	서울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봉쇄 수녀회	수시	수녀원(청주)	043)295-5940(cumjesupassio0915@gmail.com)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인준단체 알림

모임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 대상: 20세~39세
때, 곳: 3월5일(토) 17시(미사), 가톨릭회관 205-2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효순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3월11일~14일·3월25일~28일·4월8일~11일
·5월20일~23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사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반장
때: 3월6일~8일, 3월17일~19일, 3월26일~28일,
3월30일~4월1일, 4월4일~6일, 4월10일~12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0차	3월18일(금)~26일(토)	문의: 061)373-3001,
제101차	4월22일(금)~30일(토)	010-3540-9001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피정	3월5일~7일, 3월19일~21일
성지순례 피정	3월12일~15일, 3월26일~29일, 4월2일 ~5일, 4월9일~12일, 4월23일~26일

가정성교회 3월 행사

미사, 식수준비, 방역수칙 준수 / 문의: 010-6281-8626,
010-2367-2297, 010-5674-8511, 02)777-1773 대표

성가정 영성 1일 피정	강의와 제의 수요일 미사 3월2일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마진우 신부, 이현주 회장
첫 토 성도 신심미사	3월5일 13시~16시30분,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김종일 신부

교육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구, 기도모임)

내용: 말씀(영성교육)과 파견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3월6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추가접수: 3월31일(목)까지 우편접수 가능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히랍어)

때: 4월부터 1년 과정 11시~13시
(목) 신약 (금) 구약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3월~12월 / 대상: 만 15세 이상 남자
최근 5년 평균취업률 87.5% / 문의: 02)828-3600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당 지급

'오프'와 함께하는 섬, 움직임(리듬음악을 통한

몸의 자유) / 문의: 02)924-3048

대상: 39세 이하 청년직장인(10명 이내) / 카톡ID: k_off
때, 곳: 3월15일~4월5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성골롬반외방선교회(주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예수회 특별강좌 가톨릭 신앙과 영성

강의 주제: ① 죽음 너머의 삶과 세상에 대한 신앙의
가르침 ② 거장들의 예술이 비추는 인간의 심연
③ 신앙의 길, 사랑의 법 ④ 영적성장 과정에서 대면
하는 심리적 이슈들 외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영
성적 주제들 / 강사: 홍기령 교수, 임숙희 박사, 주원
준 박사 및 예수회 사제(송봉모·최시영·이규성·이훈)
현장 강의: 3월22일 개강, 매일 둘째·넷째주(화) 오전 10시
~12시(총 7회), 예수회센터 3층 상당 / 동영상 강의: 링크 발송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목요신학강좌 트랙 I (한국CLC)

때: 3월17일~4월28일 매주(목) 19시30분(6주)
곳: CLC 강의실(전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4번 출구)
회비: 8만원(대면·비대면) / 문의(접수): 02)333-9898

3월17일	하느님 나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송용민 신부
3월24일	하느님의 다스림을 성찰하는 체험 이야기	주원준 박사
3월31일	예수님께 하느님 나라를 묻다	김학철 교수
4월7일	'이미'와 '아직'사이	한민택 신부
4월21일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	박동호 신부
4월28일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것	현재우 박사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3월2일(수)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음 3월 후원회 미사 / 문의: 051)782-0765

때, 곳: 3월3일(목) 11시(미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3월4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1층 / 문의: 02)929-2977
코로나19 상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셋째마나 첫 목요일 성시간·미사(말씀의 선교 수도회)

대상: '예수성심의 온전한 사랑' 말씀의 치유를
바라는 신자 / 문의: 02)312-7211 선교 사무실
때, 곳: 3월3일 19시~2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성서가족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월 넷째주(일) 2월27일 15시
곳: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1) 첫토요일 신심미사

내용: 고해성사·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3월5일(토) 오전 10시~12시, 가톨릭회관 3층

2) 청년셀 기도모임

때: 매주(금) 19시30분 / 대상: 미혼(35세 미만)
곳: 가톨릭회관 516호 / 문의: 010-6701-1013

인내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일상담 가능

상처받은 마음치유와 자아 및 관계 회복	3월19일~4월30일 매주(토) 14시~17시(7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기피, 강박행동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자아의 통합과 영성	목요반: 강의 3월3일부터 매주(목) 10시 ~11시30분(14주), 그룹훈련 11시30분~13시 금요반: 비대면 온라인 강의(Zoom) 3월4일부터 매주(금) 14주, 치유적 강의 및 훈련 10시~13시
나의 인생이야기-전 생애 발달심리학 의 이해와 중년기(과거·현재·미래)	3월18일~4월15일 매주 (금) 10시~12시(5주)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근무 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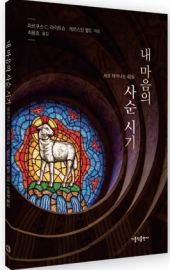
청소년국 유아부 유아휴직 대체 직원 모집(연구직)

소속 급여지급: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 인원: 2명
대상: 유아교육관련 학과 졸업자,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컴퓨터 활용가능한 자 / 문의: 02)727-2111, 2115
근무시작일: 4월4일 / 서류·근무기간: 유아부 홈페이지
(www.catholicinfant.or.kr-가톨릭 유아교육기관-채용 정보 확인)
3월4일(금)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별관 4층 유아부) 접수(당일 도착분에 한함)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직원 모집

인원: 정규직 1명 / 문의: 02)742-4151
업무내용: 가톨릭학생회(중·고등학교) 활동 지원 및
교재 연구 / 근무: 주5일 (화)~(토) 9시~18시(일·월 휴무)
곳: 가톨릭청소년회관(해동) / 대상: 세례받은
대졸자 이상(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응시 제한)
2월18일(금)~3월4일(금) 18시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우편은 3월4일 18시 도착분까지) / 서류합격자 발표: 3월5일(토)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일정 관련 개별 연락
자세한 내용은 학교사목부 홈페이지(www.kyccs.or.kr) 참조

사순 시기를 앞두고 함께하면 좋을 책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사순 시기(개정)

내 안의 스트레스를 비우고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 마르쿠스 C. 라이트 슈 외 지음 | 8,000원

사순의 진정한 의미와 더불어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기 위해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없애는 간단한 실천 방법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사순 시기가 더 이상 부담스러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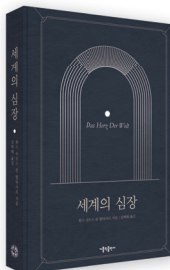


사순 묵상 노트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필사하며
사순 시기를 보다 의미있게

|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8,000원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성주간, 파스카 성삼일, 주님 부활 대축일까지 사순 시기의 여정을 나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는 노트입니다. 이 책에 제시된 다양한 실천 사항 등을 통해 사순 시기를 보다 의미 있게 보내 보세요.



세계의 심장

신의 뜨거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고찰

|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지음 | 24,000원

하느님에 관한 진리를 문학적 표현으로 녹여 낸 명저로 사랑은 조용하게 우리 자신과 온 우주에서 끊임없이 약동하고 있으며, 이 사랑의 박동에 공명하여 우리 심장도 함께 고동칠 때만 모든 갈망을 충만히 채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 줍니다.



내 마음의 주치의(개정)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과
행동에서 찾는 내 마음 치유법

| 안셀름 그륀 지음 | 15,000원

마음속 상처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해 성경 속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를 모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며 치유법을 알려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자신을 새롭게 마주하고 더 깊이 이해하며, 내적인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인류는 지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



지금 우리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꿈꾸지만 팬데믹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되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중대한 때를 만난 인류를 향한 교황님의 권고와 격려의 메시지를 지금 만나 보세요.



영성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YouTube 가톨릭북 채널

검색창에서 '가톨릭북' 검색 또는
QR코드에서 연결됩니다.



가톨릭출판사

구입문의 02) 6365-1888 또는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2021년도 본당 재정 결산

수입지부 항목	2021년 예산액	2021년 결산액
봉 헌 금 (교무금, 주일·감사·기타헌금)	2,400,000,000	2,603,743,689
후 원 금	140,000,000	155,222,000
특별헌금	50,000,000	74,517,000
기 부 금	300,000,000	191,442,825
부속기관수입 (헌배, 장례, 사용, 이자, 기타)	670,000,000	1,151,650,400
합 계	3,560,000,000	4,176,575,914

지출지부 항목	2021년 예산액	2021년 결산액
선 교 비 (제전비, 전교비, 단체보조비, 주일학교운영비, 교구납부금, 특별헌금, 통일기금, 기타부담금)	2,506,831,000	1,977,826,402
성무활동비 (사제관·수녀원)	302,400,000	293,683,570
교 육 비 (신자·직원)	6,000,000	6,950,000
성소개발비	30,000,000	32,297,000
자선찬조비	140,000,000	191,413,000
교구 및 기타행사비	0	300,000
인 건 비 (급여, 수당, 퇴직금, 복리후생)	619,104,000	642,359,888
본당 운영비 (유지, 보수, 용역 등)	380,500,000	401,006,943
세금과공과	40,500,000	41,822,685
조경기타시설비	120,000,000	144,408,872
기타잡비	10,000,000	102,823,720
운영수지차액	-595,335,000	341,653,834
합 계	3,560,000,000	4,176,545,914

2022년도 본당 재정 예산

수입지부 항목	2022년 예산액	2022년 결산액
봉 헌 금 (교무금, 주일·감사·기타헌금)	2,600,000,000	
후 원 금	157,960,000	
특별헌금	80,000,000	
기 부 금	160,000,000	
부속기관수입 (헌배, 장례, 사용, 이자, 기타)	965,000,000	
합 계	3,962,960,000	

지출지부 항목	2022년 예산액	2022년 결산액
선 교 비 (제전비, 전교비, 단체보조비, 주일학교운영비, 교구납부금, 특별헌금, 통일기금, 기타부담금)	2,151,876,000	
성무활동비 (사제관·수녀원)	304,650,000	
교 육 비 (신자·직원)	7,000,000	
성소개발비	30,000,000	
자선찬조비	150,000,000	
교구 및 기타행사비		
인 건 비 (급여, 수당, 퇴직금, 복리후생)	663,500,000	
본당 운영비 (유지, 보수, 용역 등)	413,500,000	
세금과공과	41,000,000	
조경기타시설비	154,000,000	
기타잡비	10,000,000	
운영수지차액	37,434,000	
합 계	3,962,960,000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중립계곡 2단계 기금

(2월 14일 ~ 2월 20일 : 200,000원)

누계 : 2,911,825,423원

익 명 : 100,000원 | 이 성 은 : 10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 9세~12세 가톨릭신자 남아

·문의 : 자모회장 ☎ 010-5514-3002

◎ 명동대성당 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레지오 마리아'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와 봉사로 하
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대 상 : 세례를 받은 35~45세 교우

·문 의 : 평화의 모후 Cu.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참고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회합 진행 중
(추후 대면 회합 진행 예정)

◎ 명동대성당 선교부 신입부원 모집

예비신자들이 세례 받기 위한 6개월 교육기간 동안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지원해줄 수 있는, 하느님
사랑과 성실함을 갖춘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대상 :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로 봉사정신과

책임의식을 가진 25~40세 교우

·활동 : 매월 시작되는 예비신자 교리반 담당 (예비신자
출결 및 교육과정 전반 관리) 및 환영식, 세례식,
받아들이는 예식 등

·시간 :

교리반 봉사 - 토요일/주일 중 1일 (6개월 고정)

☞ 토요일 오후 3시~6시

☞ 주일 오전 9시~12시 또는 오후 3시~6시

받들이는 예식 ☞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낮 12시~

세례식 ☞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1시~

·신청 :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조

·문의 : 예비신자 교리학교 ☎ 3407-3914

◎ 명동대성당 청년 레지오 마리아 신입단원 모집

·입단자격 : 20세 이상 34세 이하 가톨릭 신자

·신청기간 : 상시 모집

·지원방법 : 카카오톡 채널 '명동 청년레지오' 추가 후
1:1 문의 내 '입단 신청'

·비 고 : 한 달 단위로 신청자분들을 모아 참관이
진행됩니다.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학교 주교죄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조인기(암브로시오)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보좌 김영우(스테 파노) 신부
보좌 파비아노 레베자니 신부

《 재의 수요일 》

3월 2일(수)은 「재의 수요일」로 이날부터 속죄와 보속의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당일 모든 미사 중에는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마 대신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이 거행됩니다.

※가톨릭대학교 입학미사 관계로 당일 오전 10시 미사는 '파밀리아 채플'에서 봉헌됩니다.

◎ 사순 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취소

사순 시기 매주 금요일마다 대성전에서 다 함께 봉헌하던 「십자가의 길」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성전 개방시간(월-금 11:00~16:00)을 이용하시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것을 권합니다.

◎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에는 정순택 베드로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에 피정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시어 한 달을 힘차게 살아갈 영적 힘을 얻는 거룩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 3월 3일(목) 오후 8시 / 대성전

◎ 늘푸른청년 주일학교 봄학기 개강

·주제 : 3545 늘푸른 시노드

·일시 : 3월 5일~5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 명동대성당 內 고스트 홀

·대상 : 35세~45세 청년 (1988년생~1978년생)

·접수 : 2월 26일(토) 오후 5시~6시

고스트 홀 현장 접수 (접수비 3만원)

·문의 : 카카오프러스 채널 '늘푸른청년 주일학교'

◎ 3월 예비신자 교리반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기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교리반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3월 6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본관 501호에서 있을 예비신자 환영식에 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 불가)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수요반	오후7:30	교구청본관 401호	이길재 (베드로) 신부
토요반	오후4:00	교구청본관 402호	김 오티리아 수녀

- 2개 반 중 택일하여 신청, 각 반 50명씩 선착순 접수
- 준비물 : 등록비 1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6개월 과정으로 매주 2시간 수업, 미사 참례 필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3주 연장에

따르는 본당의 세부 지침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3주 연장에 따라 2월 19일 (토) 0시부터 3월 13일(주일) 24시까지 적용되는 본당 세부지침입니다.

■ 평일미사 ☞ 백신 접종 여부 및 교적에 상관없이 '선착순 299명'까지 대성전 입장

■ 주일미사 ☞ 오전 11시 미사· 낮 12시 교중미사
· 오후 4시 미사는 백신 3차 접종 완료자 & 백신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인 분만 '대성전'으로 입장, 백신 미접종 & 백신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분은 '고스트 홀'로 입장 (※QR코드 인증 또는 기타 백신 접종 증빙 자료 확인 후 입장!) 그 외 주일미사는 평일미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입장

미사 참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며, 선착순으로 줄을 서 대기하셨다가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성당 전체 개방 : 매일 오전 6시 30분 ~ 오후 9시

■ 대성전 개방 : 월~금 오전 11시 ~ 오후 4시
주 일 오후 1시 ~ 오후 3시
(※토요일,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은 미개방)

■ 지하성지 개방 : 매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상설 고해소에서 고해성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 고해성사 : 월요일 ☞ 성직자·수도자 고해성사
화~금 ☞ 오전 11시 ~ 오후 6시
토요일 ☞ 오전 11시 ~ 오후 7시
주 일 ☞ 오전 10시 ~ 오후 7시

◎ 성소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매월 마지막 주일 오전 11시 미사는 본당 성소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성소후원회는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서 수학하는 신학생들과 성소자들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사제·수도자 양성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2/14-2/20).....18,612,000
 - 연중 제 7 주일 헌금.....15,491,000
 - 감사헌금 (2/14-2/20).....1,266,000
- 김 라파엘 / 도 로사 / 박 바오로
손 테오도라 / 신 레오니아 / 안 미카엘라
이 대건안드레아 / 이 소피아 / 임 사무엘
정 루피나 / 천 테글라